



2023. 2
제19호 e-세계농업

- ❖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 세계농업브리핑
- ❖ 국제 농업 정보
 - (1) 글로벌
 - (2) 미국
 - (3) 유럽
 - (4) 일본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부 연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락처

허 장 편집위원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부 연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장 혜 진 편 집 간 사 (연 구 위 원) jhyejin@krei.re.kr (Tel. 061-820-2125)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이 현 근*

“호주 AgriFutures 사례처럼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이해 당사자 간 지식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조직이 필요한 시점”

1 들어가며

- 전 세계 농식품 수출에서 제18위(FAO 통계 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호주의 2021/22년 농식품 수출액은 675억 호주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호주의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국제적인 농식품 수요 회복, 호주 내 유리한 계절적 조건 형성, 수출 시장 다변화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 국제 농식품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첫째, 코로나19에 따른 대유행이 회복되면서 전년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되었고 둘째, 국제 곡물 생산량 부족 및 공급망 중단에 따른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호주의 양호한 날씨로 인해 곡물, 유지 종자 및 면화를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증가한 점도 전체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농식품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액 비율이 2020/21년 27% 수준에서 2021/22년에 37%로 상승했다. 특히, 호주의 수출액 상위 10개국에서 중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모두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년도에 수출액이 급감했던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3% 증가했다.¹⁾
-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인 배경 외에도 호주 내 농업 혁신과 농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별 연구·개발 법인의 활성화도 호주의 농식품 수출액 증가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생물물리학·환경·사회적 도전과 국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투자하는 산업별 연구·개발 법인을 만들어 호주 농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호주의 연구·개발 법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품목 외에도 농촌의 신흥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 커뮤니티 중심의 상향식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법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개발 법인으로 호주 AgriFutures를 들 수 있다. 1989년 농촌산업연구·개발 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호주 AgriFutures는 호주의 15개 연구·개발 법인의 하나이며, 연방정부 연구·개발 법인에 속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hklee@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2020년 발간한 'Rural Well-being: Geography of Opportunities' 보고서 제4장 Implementing the Rural Well-being Policy Framework: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picture of OECD countries를 번역·요약하여 작성함

1)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년 대비 40% 증가함.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신생 산업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호주 AgriFutures는 호주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맞추어 5년 단위 연구·혁신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evokeAG., growAG.와 ENRI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호주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이에 본 고에서는 호주 연구·개발 법인의 전반적인 현황과 신흥 산업을 위해 설립된 호주 AgriFutures 현황 및 운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연구·개발 및 생산자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흥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법인은 최근 5년간 그 기틀을 다지고, 향후 5년간의 운영 전략을 마련한 바 있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호주 농촌 연구·개발 법인(Rural RDC) 개요

2.1. 농촌 RDC 현황

- 현재 호주 농촌 RDC는 15개가 있으며, 그중에 5개는 연방정부 기관이고 나머지 10개는 산업계가 소유하는 법인이다. 산업 소유의 법인은 마케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연방정부 RDC도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부과금(levy)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 먼저, 연방정부 RDC는 호주 포도주, 면(목화) RDC, 수산 RDC, 곡물 RDC와 호주 AgriFutures의 다섯 개 법인이 있다.²⁾ 2013년 호주 포도주법(Wine Australia Act 2013)에 의해 설립된 호주 포도주 RDC 외에 나머지 연방정부 RDC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연방정부 RDC는 농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이사회로 구성된 법적 기관이며, RDC별 근거 법령과 대표 생산자 조직은 다음 <표 1>과 같다.

2) 호주 AgriFutures는 육계, 수출용 마초, 꿀벌, 쌀, 생강, 티트리오일, 캥거루, 버팔로, 사슴 등의 신생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법인임(3.3절 참고).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표 1. 호주 연방정부 RDC 현황

| 구분 | 대표 생산자 조직 | 법적 근거 |
|------------------------------|--|--|
| Wine Australia | Australian Grape and Wine Incorporated Winemakers organization Wine Grape Growers organization | Wine Australia Act 2013 |
| Cotton RDC | Cotton Australia | Primary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1989 |
| Fisheries RDC | - Commonwealth Fisheries Association RecFish Australia Seafood Industry Australia | |
| Grains RDC | - Grains Producers Australia Limited Grain Growers Limited | |
| RIRDC(AgriFutures Australia) | National Farmers' Federation Australian Chicken Meat Federation | |

자료: 호주 농업부(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arm-food-drought/innovation/research_and_development_corporations_and_companies#statutory-rdcs_2). 검색일: 2022. 12. 14.

- 다음으로 산업 소유의 RDC는 다음 <표 2>와 같다. 산업 소유의 RDC는 계란, 가축 수출 기업, 육가공 기업, 돼지, 양모, 낙농, 산림·목재 생산품, 원예 혁신, 고기 및 가축, 설탕의 10개 RDC가 있다.

표 2. 호주 산업 소유의 RDC 현황

| 구분 | 근거 법령 |
|--|---|
| Australian Eggs Limited | Egg Industry Service Provision Act 2002 |
| Australian Livestock Export Corporation Limited (LiveCorp) |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Industry Act 1997 |
| Australian Meat Processor Corporation |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Industry Act 1997 |
| Australian Pork Limited | Pig Industry Act 2001 |
| Australian Wool Innovation Limited | Wool Services Privatisation Act 2000 |
| Dairy Australia Limited | Dairy Produce Act 1986 |
| Forest and Wood Products Australia | Forestry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7 |
| Horticulture Innovation Australia Limited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Industry Act 1997 |
| Sugar Research Australia Limited | Sugar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13 |

자료: 호주 농업부(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arm-food-drought/innovation/research_and_development_corporations_and_companies#statutory-rdcs_2). 검색일: 2022. 12. 14.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2.2. 농촌 RDC 설립 역사³⁾

- 호주는 식품 및 섬유 분야에서 호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 도시와 농촌의 고용,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가운데 연구자, 투자자, 정부, 농산물 생산자와 농기업 사이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서 호주는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독특한 모델을 개발했다.
-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혁신의 개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정부와 기업이 취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연구자와 대학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 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간접'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한편, 기업은 경쟁 우위 및 상업적 이익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이 과정은 길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체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거나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는 1989년에 연방 법률인 「1차 산업 및 에너지 연구·개발법(Primary Industries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9)」 제정을 통해 정부 기관인 농촌 연구·개발 법인(Rural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농촌 RDC)을 설립하였다. 농촌 RDC 모델은 호주 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접근 방식과 다른데,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산업과 정부 사이의 독특한 파트너십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 RDC의 목표는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농촌 산업, 농촌, 지역 사회 및 국가에 경제·환경·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 RDC 중에서 대부분의 농촌 RDC가 시장 개발, 시장 접근 및 판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독립적인 산업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모든 농촌 RDC는 이사회가 주도하여 정부와 산업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요에 맞춘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승인한다. 또한, 모든 농촌 RDC는 정부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3. 호주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

- 호주 정부는 2021년 10월 11일에 국가 농업 혁신 정책 성명(Nat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Policy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2030년까지 호주 농업 혁신 시스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장기적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3) 호주 농촌 RDC 홈페이지(<http://www.ruralrdc.com.au/>, 검색일: 2022. 12. 14.)를 참고하여 작성함.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첫째, 호주는 2030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과 농산물 수출자가 된다.
- 둘째, 호주는 2030년까지 농업 부문의 생산성,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 회복력 (climate resilience) 옹호자로서 활동한다.
- 셋째, 호주는 2030년까지 생물보안 시스템을 통해 중요한 해충과 질병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된다.
- 넷째, 호주는 2030년까지 선도적인 디지털 농업 채택자, 개발자 및 수출자가 된다.

- 호주 정부의 과학 및 연구 우선순위, 국가 1차 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프레임워크와 함께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 투자가 전략적이고 협력적이며 수익성, 생산성, 경쟁력 및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 원칙 기반 법적 자금 조달 계약

- RDC는 주로 법정 부과금(levy)과 호주 정부의 일대일 매칭 자금으로 운영된다. 호주 정부는 농촌 연구·개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별 총생산액의 최대 0.5%를 지원한다. 법정 부과금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농업, 수자원 및 환경부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연구·개발 및 산업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각 RDC에 분배된다.
- 산업 소유 및 연방정부 RDC의 핵심 성과 및 책임 프레임워크(key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ramework)는 연방정부와 체결한 자금 조달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RDC 간의 자금 조달 계약의 주요 기능은 법정 부과금 지출과 연방정부 매칭 금액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다.
- 2019년에 모든 RDC와의 자금 조달 계약은 원칙 기반 접근 방식(principles-based approach)⁴⁾으로 갱신되었으며, 이는 10년 동안 적용된다. 자금 조달 계약은 RDC가 이사회 및 기타 거버넌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관행을 관리한다는 기대를 나타낸다. 자금 조달 계약은 RDC가 부과금과 공적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결과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성과 원칙을 포함한다.

4) 일반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규칙 기반 접근법(rule-based approach)과 원칙 기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이 있음. 규칙 기반 접근법은 법적인 요구사항에 따른 지배구조를 의미하고, 그 규칙 등을 준수했는지를 법적인 판단을 받는 구조를 의미함. 반면, 원칙 기반 접근법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요구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방법을 실천하는 방식임(<https://learnbusinessconcepts.com/rules-based-approach-vs-principles-based-approach/>, 검색일: 2023. 3. 3.)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이해관계자 참여: 연구·개발 및 보급(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 RD&E) 우선순위, 관련 산업에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 연구·개발 및 보급(RD&E) 활동: 우선순위 및 활동은 전략적이고 협력적이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고 미래 기회(도전)를 대비한다.
- 협업: 공유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부문의 경험을 활용하는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산업 간 및 부문 간에 협업한다.
- 거버넌스: 준비 및 활동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금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적절한 사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부과금 납부자를 포함한 호주 사회에 긍정적인 성과와 연구·개발 및 보급(RD&E) 혜택을 제공하고, 거버넌스 및 행정 효율성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 한편, 자금 조달 계약은 RDC가 자금을 사용하여 농업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2.5. 호주 정부의 역할

- 호주 농업부 장관은 RDC를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RDC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금 조달 계약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더 나은 실행 관리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지침 제공
 - 각 RDC의 연례 성과 회의 참여
 - 법적 및 의회 요구사항 이행 지원
 - 정부와 RDC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 RDC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프레임워크 구성 지원
 - 부과금 자금 흐름 관리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3 호주 AgriFutures 개요와 사업추진 현황

3.1.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 AgriFutures는 1989년에 설립된 RIRDC가 (Rural Industries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2017년에 이름을 변경한 법인이다. AgriFutures는 15개 농촌 연구·개발 법인 중의 하나이며, 농업인과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번영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AgriFutures는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2017~2022 전략적 R&D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 2017~2018년은 본사 이전과 더불어 티트리오일과 경주말 산업의 부과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 2018~201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농식품 기술 박람회(evokeAG.)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11개 RDC, 호주 전국농업인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와 NSW주⁵⁾ 공동으로 공동체 신탁(Community Trust)을 출범했다.
 - 2019~2020년에는 해초 산업 청사진 발표, 건초 신제품 개발과 대체 단백질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했다.
 - 2020~2021년에는 생산자 기술 향상 시범 사업(Producer Technology Uptake Program: PTUP), growAG. 개발, 퀴노아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했다. 2021~2022년에는 각종 시상 제도를 마련했고, 꿀벌 종(種) 평가체계 구축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급망 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표 3. 호주 AgriFutures의 2017/18년~2021/22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 주요 사업 |
|-----------------------------|--|
| 2017~2018년 재창조(reinven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신제품(Viand) 농가 전수 • 티트리오일(Tea Tree Oil) 부과금(levy) 발효 • 서러브레드(Thoroughbred) 경주말 부과금(levy) 발효 |
| 2018~2019년 영감(inspi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okeAG(아시아-태평양 농식품 기술 박람회) 행사 개최 • 농촌 여성상 및 장학제도 개편 • 11개 RDC, NFF, NSW간 공동체 신탁(Community Trust) 출범 |
| 2019~2020년 혁신(innov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해초 산업 청사진 발표 • 건초 신제품(Koorabup) 개발 • 대체 단백질의 기회와 도전에 관한 보고서 발간 |

5) State of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구분 | 주요 사업 |
|------------------------------|---|
| 2020~2021년 협력(collabo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기술 향상 시범 사업(PTUP) 도입 • grow^{AG}(호주 농업의 연구·혁신·상업화를 위한 국제 포털) 개발 • WA주와 퀴노아 신품종(Kruso White) 공동 개발 |
| 2021~2022년 강화(consolid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연구 사업인 Plan bee의 꿀벌 종(種) 평가체계 구축 • 쌀 육종 협회가 보증하는 신규 회사 설립 • 농촌 여성 혁신상 도입 • 올해의 연구자상 도입 •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회복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자료: 호주 AgriFutures(2022b).

3.2. 조직 및 예산 구조

- AgriFutures 이사회는 의장, 경영 이사와 6명의 지명직 이사 등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경영 이사는 상임직이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 이사이다. 이사들은 다양한 농촌 기업체와 생산, 가공, 마케팅 연구·개발 관리, 기업 관리, 사회 과학, 기술 이전, 환경과 생태 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선임된다.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은 경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의장만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나머지 이사는 장관이 국가 농업인 연합회, 호주 육계 연합회 이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명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명된 이사들이 경영 이사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이사회 구성이 완료된다.
- AgriFutures 이사회는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인들에게 안전하고 보상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사회는 다양한 공동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을 추구하고, 5년 단위 전략적 혁신 계획 개발을 주도한다.
- AgriFutures의 예산에서 수입은 자체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자체 수입액은 2021/22년 기준 431만 7천 호주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9% 수준에 불과하고, 기타 보조금(8.1%)이 자체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수입액의 90.1%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3,945만 6천 호주 달러)에서 연방정부 기여금(3,349만 1천 호주 달러)은 76.5%, 법정 부과금은 13.6%(596만 5천 호주 달러)를 차지한다.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표 4. 호주 AgriFutures의 수입과 지출 예산 현황

단위: 천 호주 달러

| 구분 | 2021/22 | 비중 | 2022/23 | 2023/24 | 2024/25 | 2025/26 |
|-----------|---------|--------|---------|---------|---------|---------|
| 지출 | 50,373 | (100) | 54,347 | 52,809 | 52,809 | 52,810 |
| 임금 | 4,340 | (8.6) | 4,600 | 4,600 | 4,600 | 4,600 |
| 공급자 | 11,896 | (23.6) | 16,557 | 14,930 | 14,930 | 14,930 |
| 보조금 | 33,852 | (67.2) | 32,908 | 33,000 | 33,000 | 33,000 |
| 감가상각 | 270 | (0.5) | 270 | 270 | 273 | 273 |
| 금융비용 | 15 | (0) | 12 | 9 | 6 | 3 |
| 수입 | 43,773 | (100) | 48,347 | 46,809 | 46,809 | 46,810 |
| 자체 수입 | 4,317 | (9.9) | 6,004 | 5,930 | 5,930 | 5,930 |
| 이자 | 167 | (0.4) | 281 | 280 | 280 | 280 |
| 기타 보조금 | 3,552 | (8.1) | 4,115 | 4,000 | 4,000 | 4,000 |
| 로열티 | 315 | (0.7) | 315 | 350 | 350 | 350 |
| 기타 | 283 | (0.6) | 1,293 | 1,300 | 1,300 | 1,300 |
| 정부 지원금 | 39,456 | (90.1) | 42,343 | 40,879 | 40,879 | 40,880 |
| 연방정부 기여금 | 33,491 | (76.5) | 35,050 | 35,379 | 35,379 | 35,380 |
| 산업계 부과금 | 5,965 | (13.6) | 7,293 | 5,500 | 5,500 | 5,500 |
| 잔액 | -6,600 | | -6,000 | -6,000 | -6,000 | -6,000 |

주 1) 연방정부 기여금은 연방정부의 총당금과 매칭 기금으로 구성됨.

2) 2021/22년은 실제 수입액과 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며, 2022/23년부터는 예산 규모를 나타냄.

자료: 호주 AgriFutures(2022a).

- AgriFutures의 지출은 인력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AgriFutures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농촌 여성의 교육과 아이디어 개발 등을 위해 7명에게 최대 7천 호주 달러를 지원하는 농촌 여성 촉진 보조금(Rural Women's Acceleration Grant)과 호주 농촌 및 신흥 산업, 지역 사회 등에 포용적인 리더십을 기여한 여성(주(州)별 1명, 총 7명)에게 1만 5천 호주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촌 여성상(Rural Women's Awards),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올해의 연구자상 등이 있다. 2021/22년 보조금 지출 규모는 3,385만 2천 호주 달러로 전체 지출액의 67.2%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인데, 전체 지출액의 23.6%인 1,189만 6천 호주 달러를 지출했다.

3.3. 관련 산업 및 이해관계자

- AgriFutures는 투자가 필요한 핵심적인 관심 사항과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부과금(levy) 납부자와 함께 협업을 추구한다. AgriFutures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9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AgriFutures의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13개 분야 산업별 부과금(levy) 납부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8개 산업별 자문단인데, 산업별 자문단은 AgriFutures의 산업계 수요 파악과 확정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별 대표조직은 연구·개발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주요 참석 대상이다. 연방기금협정(SFA)은 RDC의 핵심 대표조직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AgriFutures의 경우 호주 전국농업인연맹과 호주 육계협회가 핵심 대표조직이다. 이외에도 AgriFutures는 산업 간 이슈를 다루기 위해 농촌 산업 관련 단체와 협업하고, 국제 혁신, 지역 및 국가 단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농촌 산업이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5. 호주 AgriFutures의 이해관계자 현황

| 구분 | 이해관계자 | |
|------------------------|--|--|
| 부과금 납부자 (총생산액 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Chicken Meat) • 수출용 마초(Export Fodder) • 서러브레드(Thoroughbred) 경주말 • 꿀벌·수분(Honey Bee and Pollination) • 쌀(Rice) • 생강(Ginger) • 티트리오일(Tea Tree Oi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지 종자(Pasture seeds) • 캥거루(Kangaroo) • 버팔로(Buffalo) • 사슴(Deer) • 염소 섬유(Goat Fibre) • 백혈구(Ratite) |
| 산업별 자문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협회 자문단 • 수출용 마초 자문단 • 서러브레드(Thoroughbred) 경주말 자문단 • 꿀벌·수분 자문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R&D 관리 위원회 • 생강 자문단 • 티트리오일 자문단 • 목초지 종자 자문단 |
| 산업별 대표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육계 연합회 (Australian Chicken Meat Federation) • 호주 루체른(Lucerne Australia) • 호주 수출 기업(Australian Exporters Company) • 서러브레드(Thoroughbred) 경주말 • 호주 경마(Racing Australia) • 호주 꿀벌 산업 위원회 • 호주 쌀생산자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생강산업협회 • 호주 티트리산업협회 • 호주 캥거루산업협회 • 호주 버팔로 산업 위원회 • 호주 사슴산업협회 • 호주 모헤어 • 호주 캐시미어생산자협회 |
| 신생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프(Hemp) • 천연 식품 • 참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노아 • 약어 • 기타 |
| 대표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업인연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육계 연합회 |
| 농촌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RDC • AIA • 호주 전국농업인연맹(NFF) • 호주 농림수산부(DAFF) • 주 및 준주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협회 • 혁신 허브 • 기업 • 생산자 그룹 |
| 호주 및 국제 농식품 혁신 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산업협회 • 연구자 • 일반 기업 • 투자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 대학 • 중소기업 • 세계 기술 기업 |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구분 | 이해관계자 | |
|--------|---|--|
|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농림수산부(DAFF) | |
| 연구 파트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C들 주정부 및 준주정부 혁신 허브 대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협동연구센터 국제 연구 파트너 민간 컨설턴트 |

주: 루체른(lucerne)은 주로 건초, 사일리지 및 목초지 생산에 사용되는 다년생 콩과 식물임.
 자료: 호주 AgriFutures(2022b).

3.4. 연구·혁신 전략 계획(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c Plan)

- AgriFuture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연구 및 혁신 전략 계획 수립의 하나로 2027년까지 추진할 16:5:5 로드맵을 개발했다. 16:5:5 로드맵은 5년(2022~2027년) 동안 5개 핵심 분야를 위한 16개 우선순위로 구성되며, 현재와 미래에 강하고, 활기차고, 협력적인 농업을 목표로 한다. 5개 핵심 분야는 전통 산업(Industries), 신생 산업(Emerging Industries), 노동력과 지도력(Workforce and Leadership), 국가적 도전과 기회(Nation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 혁신 네트워크(Global Innovation Networks)로 구성된다.
- 전통 산업과 관련된 우선순위는 부과금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투자수익률 극대화, 산업계와의 협력 등, 특정 연구 및 혁신 전달, 미래 준비와 변형 지원, 잠재적 신기술·행동·혁신 실험과 산업관리·공동체 형성·소비자 만족도 증진 지원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순위별 성과지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이다.
- 신생 산업과 관련된 우선순위는 신생 농촌 산업의 성장 또는 개발 유도와 새로운 수익 창출 분야 개발의 두 가지가 있다. 성과지표는 5년 단위로 평가되는 실적지표이다.
- 노동력과 지도력 분야는 네 가지 우선순위가 있으며, 주요 사업은 농촌 여성상, 장학금 등이 있다. 성과지표는 대부분 매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만족도이다.
- 국가적 도전과 기회 분야는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주요 사업은 ENRI 포럼, 보조금, 공동체 신탁(Community Trust)이 있다. 성과지표는 대부분 연구를 통한 결과물 전달이다.
- 마지막으로 국제 혁신 네트워크 분야는 농식품 기술 및 혁신의 개발과 수출, 평가와 적용 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evokeAG., growAG., 생산자 기술 향상 프로그램(PTUP) 등이 있다.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AgriFutures의 16개 우선순위는 호주 국가 농업 혁신 우선순위(Nat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Priorities, NAIP),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SDGs),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원칙과 연결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앞서 2.3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2030년까지 달성할 네 개의 혁신 우선순위를 개발했고, UN은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2015년도에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했다. AgriFutures의 16개 우선순위는 최소 6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연결된다.

표 6 호주 AgriFutures의 16:5:5 로드맵

| 5대 핵심 분야 | 16개 우선순위 | 핵심 성과지표 | 평가 주기 |
|------------|--------------------------------------|---|-------|
| 일반 산업 | • 연구·개발 부과금을 활용한 투자수익률 극대화 | 편익:비용 비율: 4:1 | 5년 |
| | • 산업계와의 청문, 참여, 협력, 컨설팅 | 만족도: 70% | 연간 |
| | • 산업별 특정 연구 및 혁신 전달 | 목표 달성률: 80% | 5년 |
| | • 산업계의 미래 준비와 번영 지원 | 만족도: 70% | 연간 |
| | • 산업계가 취할 잠재적인 신기술, 행동과 혁신의 규정·연결·실험 | 연간 5개 기술 또는 혁신 시도 | 연간 |
| | • 산업관리, 공동체 형성, 소비자 만족도 증진 지원 | 만족도: 70% | 연간 |
| 신생 산업 | • 신생 농촌 산업의 성장 또는 개발 유도 | 최소 5개 신생 산업 분야에 5개 투자 유도 | 5년 |
| | • 새로운 수익 창출 분야 개발 | 최소 5개 잠재 수익 창출 분야 개발 | 5년 |
| 노동력&지도력 | • 호주 농촌 산업의 미래 노동력 수요 이해와 대응 | 연 1회 국가 노동 수요 연구를 통한 결과 전달 | 연간 |
| | • 노동력 유입과 유지 | 만족도: 80% | 연간 |
| | • 변화를 이끌 동기부여와 능력 개발 지원 | 만족도: 80% | 연간 |
| | • 특정한 노동력과 지도력 수요 대응 | 만족도: 80% | 연간 |
| 국가적 도전과 기회 | • 국가적 도전과 기회의 규정, 이해와 대응 | 최소 연간 4개 연구 수행 결과 전달 | 연간 |
| | • 부문 및 조직 간 협력 실행 | 연간 1회의 국가 농촌 이슈 포럼 개최 또는 국가적 협력 프로젝트 수행 | 연간 |
| | • 산업 관리 주체 육성과 공동체 신뢰 형성 | 최소 연간 1회 연구 결과 전달 | 연간 |
| 국제 혁신 네트워크 | • 호주가 농식품 기술 및 혁신의 개발과 수출 분야 리더임을 보증 | 3개 행사·네트워크·플랫폼 수행 | 연간 |

자료: 호주 AgriFutures(2022b).

3.5. 호주 정부와의 협력 사업 사례

3.5.1. evokeAG.

- AgriFutures의 evokeAG.는 AgriFutures의 전략적 연구·개발 계획 2017-2022에서 개발된 사업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농식품 기술 부문의 아이디어·영감·기회 등을 소개하는 행사이다. 또한, 본 행사는 글로벌 리더, 스타트업, 소비자와 투자자를 한 장소에서 연결하여 투자계약을 중개하기도 한다.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2019년 evokeAG. 행사에서는 약 40억 호주 달러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투자자 만찬에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 기금을 포함한 260억 호주 달러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행사에서 두 개의 스타트업(SwarmFarm Robotics, RapidAim)은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6백만 호주 달러의 추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2019년과 2020년 행사를 통틀어 66개의 지식 공유 세션이 열렸고, 30개국에서 참가한 424명의 대표단을 포함한 2,669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12개의 국제기구 대표단과 전 세계 15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대유행 이후에는 혁신적인 뉴스와 전 세계 소식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디지털 행사로 확장했다. evokeag.com에서는 호주 농업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스타트업이 그들이 능력을 높이고, 잠재적인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 과학자들이 그들의 발견을 보여주고, 세계적 기업가들이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그들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5.2. growAG.

- AgriFutures의 growAG.는 호주의 농식품 혁신을 세계에 전달하는 창구이며, 2021년 4월 플랫폼(growag.com) 구축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맞춤형 웹사이트는 호주의 농식품 혁신 연구 프로젝트, 기관, 연구, 투자와 상업화 기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griFutures의 growag.com에는 호주 및 167개국의 농식품 관련 수만 명의 관계자가 호주의 농식품 관련 연구와 혁신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 growAG.는 수분 의존성(Pollination dependency) DB, 밀 왕관썩음병 저항 신물질,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같이 최근에 개발된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3.5.3. ENRI(Emerging National Rural Issues) 포럼

- 호주의 농촌 산업계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서로 같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5개 RDC는 서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때 중복성과 분열을 줄이기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AgriFutures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농업 시스템에서 협업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연구·개발 법인(RDC), 호주 농수산부(DAFF), 호주 전국농업인연맹(NFF)과 호주 농업 혁신(AIA)이 참여하는 ENRI(Emerging National Rural Issues)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 ENRI 포럼은 위에서 언급한 주체 간 투자 및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이 포럼은 주체 간 연결, 정책 토론을 알리고 개선하는 연구 투자를 증대한다. 특히, 2018년에 시작된 공동체 신탁(community trust)은 산업계와 사회 사이의 관계 속성과 관련된다. 즉, 기업의 성장이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최선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와 사회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동체 신탁이 시작되었다. 공동체 신탁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 양질의 영양, 탁월한 동물 관리 및 환경 관리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을 두는 주제와 가치를 산업계가 공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표 7. 호주 ENRI 포럼 결과물 사례

| 구분 | 우선순위 |
|--|--|
| 공동체 신탁 (Community Trus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1개의 RDC, 호주 전국농업인연맹(NFF), NSW주의 1차 산업부 간의 협력 파트너십 • 2022년 전국적 설문 조사 시행 및 1만 4천여 명 이상 참여 |
| 호주 농업 혁신 (Agricultural Innovation Australia: A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모든 RDC가 참여하여 비영리 유한회사인 AIA 설립 • AIA의 목적은 농수임업에서의 거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며, 국가 농업 자원 개발과 생산성,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 증진도 포함 |

자료: 호주 AgriFutures(2022b).

4 시사점

- 호주의 연구·개발 법인과 연방정부 기관 성격인 AgriFutures는 호주 농업의 혁신과 농업 부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수립하는 AgriFutures의 연구·개발 혁신 전략 등 호주의 연구·개발 법인의 운영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호주 연구·개발 법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호주 정부와 농업 부문의 다양한 생산자단체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하되, 연구·개발 관련된 이슈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 수많은 생산자단체가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를 협의·선정하고, 그 결과를 각 산업계에 공유하며, 국가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회의소라는 중간 조직이 2010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총 39개 소가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장치 부족, 재정 여건 악화, 회원 구성의 한계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김정섭 외 2021). 또한, 이들 조직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고, 사업 내용도 농정 협의 또는 농정부서에 대한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연결하는 조직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사업 내용 측면에서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호주의 연구·개발 법인 특히, AgriFutures는 정부와의 원칙 기반 자금 조달 계약을 통해 자금 사용의 목적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 기반 자금 조달 계약을 통해서 중간 조직이 이해관계자 참여, 연구 결과 확산, 협업과 거버넌스 등 농업 부문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부과금이나 정부의 매칭 자금 등을 정치적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오롯이 농업 부문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자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지원되는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무엇보다 조직 자체의 운영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나라 농업 혁신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일반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셋째, AgriFutures는 정부의 농업 혁신 정책에 맞추어 5년 단위 연구·혁신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주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연구·혁신 전략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산업 부문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AgriFutures는 evokeAG. 및 ENRI 포럼 등 호주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vokeAG. 와 같은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의 기술적인 성과 홍보 및 기술 공유, 투자 유치 등이 호주 전체적인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 농업박람회와 농업기술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그러나 이러한 박람회들이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단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농업계의 기술교류나 외부 투자자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주도 박람회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박람회 개최 주체와 성격 등을 한층 개선하는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ENRI 포럼은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국가적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 중복성과 분열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다양한 의제들 속에서 생산자단체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편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생산자단체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도출한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이나 성과들을 다시 점검하고,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연결하되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혁신과 기술 공유 및 확산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조직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0여 개 이상의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품목 특정한 비영리법인은 80여 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같은 품목 안에서도 서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존재하는 품목이 30여 개에 달하고 있어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법인 운영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을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소득증대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라는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⁶⁾ 등 정부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목별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기능을 추구할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개발 조직과 실제 품목별 생산자단체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어렵게 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경쟁하고, 국내 이해당사자간 협업과 지식 등의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중간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과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22년 3월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호주 AgriFutures 현황과 시사점

참고문헌

- 김정섭·이순미·강마야·김정승. 2021.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griFutures Australia. 2022a. AgriFutures Australia Annual Operational Plan 2022-2023.
- AgriFutures Australia. 2022b. AgriFutures Australia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c Plan 2022-2027.
- Rural Bank. 2022. 2021/2022 Australian agricultural trade.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arm-food-drought/innovation/research_and_development_corporations_and_companies#statutory-rdcs_2, 검색일: 2022. 12. 14.>
- Rural RDC. <<http://www.ruralrdc.com.au/>, 검색일: 2022. 12. 14.>
- Learn Business Concepts. <<https://learnbusinessconcepts.com/rules-based-approach-vs-principles-based-approach/>, 검색일: 2023. 3. 3.>



세계 농업 브리핑



1 아시아

1.1. 필리핀,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2023년까지 연장

- 2022년 12월 1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쌀, 돼지고기, 옥수수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함.
 - 전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는 2022년 초 쌀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필리핀은 식량 및 연료 가격 완화를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음. 돼지고기와 옥수수, 쌀은 수입할당량(import quota) 내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 15%, 5%, 35%의 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며, 수입할당량 이외에는 각각 25%, 15%, 35%의 관세가 적용됨. 석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또한 2023년 말까지 0%로 유지될 예정임.
- 필리핀 정부는 식량 안보를 중요 과제로 강조하고 식량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음. 2022년 12월 17일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2023~2028 필리핀 경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의 중요 요소로 식량 안보를 강조함.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청장은 일부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식량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 밝힘.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2.12.21.)



세계 농업 브리핑

1.2. 일본, 친환경 사료로 부가가치 창출 '순환형 축산업'

-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키노에라부섬(沖永良部島)에서는 섬 특산물인 사탕수수와 목이버섯의 찌꺼기를 활용한 사료로 가축을 키우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음.
 - 섬의 축산업은 본토에서 사료 등을 사야하기 때문에 운송비용 부담이 크며,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 하나가 바로 “키쿠라게규(キクラゲ牛, 목이버섯(키쿠라케)와 소(규)를 합친 브랜드 명칭)”임.
- 오키노에라부섬의 한 축산 농가는 번식을 끝낸 어미 소에게 목초에 목이버섯과 사탕수수 찌꺼기를 섞은 사료를 6개월 동안 먹여 키워, “키쿠라게규(キクラゲ牛)”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음. 판매채널은 후루사토 납세제도* 답례품으로 한정적이었으나, SNS를 통해 고기 맛이 진하며 감칠맛이 난다고 호평을 받았음.
- 이 키쿠라게규 사료에 사용하는 목이버섯은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균상으로 재배되며, 사탕수수도 역시 쇠똥을 활용한 비료로 재배되고 있음. 원래는 폐기되는 것들을 활용한 이 방법을 폐기물을 감량할 뿐만이 아니라 축산물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 후루사토 납세제도 : 일본 지방자치체에 기부하면 주민세 공제와 기부한 지방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소는 10번 정도 출산을 반복하고 나면 더 이상 번식은 어려워며, 번식을 끝낸 소의 살에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이 안타까운 점임.
- 번식을 끝낸 소를 식용으로 다시 키워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가축 농가와 사탕수수 찌꺼기 활용한 목이버섯 재배를 시도 중이던 농가가 만나 재활용 순환 모델이 형성됨.
- 오키노에라부섬에서는 옥수수나 보리와 같은 영양가가 높은 사료는 섬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본토에서 사야 하며, 본토에서 가져올 만큼 물류비용도 비쌌. 하지만 목이버섯 사료는 원재료를 전부 섬에서 조달할 수 있어 사룻값 삭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이 높아지면서 지방이 적고 담백한 살코기가 인기를 얻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니즈 다양화에 키쿠라게규 농가는 담백한 살코기가 특징인 키쿠라게규의 질을 높이는 시행착오를 계속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섬에서의 순환형 축산업 확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일본에서는 농산물이나 가축 브랜드는 높은 당도, 고품질, 지역 특색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브랜드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강조되면서 생산 과정도 중요시



세계 농업 브리핑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환경을 배려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2.12.22.)

1.3. 홍콩,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반응 발견

- 홍콩 농무부는 지난 11일 토요일 상수시 타쿠링(Ta Kwu Ling)의 양돈장에서 32마리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함. 32마리의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반응을 확인한 홍콩정부는 100여 마리 돼지를 도살 처분한 가운데, 관련 업계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한다고 입장을 밝힘.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반응 발견으로 인해 도살업자들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돼지를 도살 처분하고 전면 소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음.
 - 홍콩 축산업협회의 람윙위안(Lam Wing-yuen) 부회장은 양돈 업계가 돼지 도살 처분 소식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안전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돼지 농장의 운영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그는 “홍콩의 양돈장은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데 열병 바이러스 발견 시 농장 내 모든 돼지를 도살 처리해야 하며, 농장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일주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양성반응을 보인 해당 농장에서 3km 이내에 있는 돼지 농장 5곳의 돼지고기 판매를 10일간 중단하기로 한 당국 부서의 결정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음.
 -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지역 농장들이 소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덧붙였음.
- 홍콩에서 가장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사례가 발견된 것은 2019년 5월이며 감염된 돼지는 즉시 도살장으로 보내지고 이후 24시간 이내 도살처리 되어야 함. 아울러, 양돈 농가들은 농장 내 외부에서 차량과 인력 통제를 포함해 즉각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농무부는 해당 농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돼지 농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돼지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힘.



세계 농업 브리핑

- 돼지고기는 홍콩 식문화에서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뒤로 이번 돼지 열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홍콩 소비자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
- 홍콩 내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우수한 육질과 맛으로 홍콩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거리상으로 가까워 물류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철저히 대응하며, 홍콩 내 돈육 시장진출에 더욱 힘써봐야 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2.17.)

2 아메리카

2.1. 미 FDA, 강화된 식품 이력 추적 규정 발표

- 11월 미 FDA는 오염된 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특정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 규정을 최종적으로 발표함.
- 식품 이력 추적 리스트에는 치즈, 달걀, 채소, 과일, 생선 등이 포함되며 해당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기업들은 중요한 추적 사건(CTE, Critical Tracking Events)에서 로트 번호, 수확 위치와 같은 주요 데이터 요소(KDE, Key Data Elements)를 관리하고, 필요한 KDE를 다음 식품 수령자에게 전송해야 함.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에 발효하며,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 **[FDA, 특정 식품에 대해 추가 이력 추적 기록 요구]** 지난달 미 FDA는 오염된 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식품 이력 추적(Food Traceability)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음. 이 최종 규칙은 FDA의 스마트 식품 안전 청사진(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blueprint)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섹션 204(d)를 구현한 것으로 신선 잎채소, 견과류 버터, 포장 조각과일, 즉석 델리 샐러드 등 특정 식품(FTL, Food Traceability List)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업자들을 위한 추가 추적 기록 보관 요건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FDA는 산업계와 협력해 오염된 식품의 시작과 이동 경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식별해 식품 매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심각한 건강 및 사망 위협을 해결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고 및 리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2020년 FDA는 관련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1년 초까지 식품 생산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접수함. 접수된 의견에 근거해 현재 산업의 접근 방식과 더 유사하고, 공급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규칙을 다소 수정하였음.
 - 최종 규정은 FTL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기업들이 중요한 추적 사건(CTE, Critical Tracking Events)에서 로트 넘버, 수확 위치와 같은 주요 데이터 요소(KDE, Key Data Elements)를 관리하고, 필요한 KDE를 다음 식품 수령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함.
 - 그러면 농장에서 소매점까지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력 추적 기록 보관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은 업계가 단기적으로나 미래에 더 많은 디지털, 상호 운용 가능 및 기술 지원 추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식품 이력 추적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식품 이력 추적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빠르게 많은 인명을 살리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며, 소비자 신뢰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식품 오염 발생 시 제품 가치 사슬 내에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식품 생산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2018년 가을,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로메인 상추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E.coli O157:H7) 감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의 원인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로메인 상추 판매가 중단된 사례가 있음.
 - 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은 업계 전체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있어서 식품 안전성은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임.
-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 이에 대한 대비 요구]** FDA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식품 이력 추적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20일 발효되지만, 관련 업계가 제도에 잘 적응해 필요한 정보의 기록/보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도록 2026년 1월 20일까지 시행되지 않음.
- 또한 이 기간에 FDA는 웨비나 등을 통해 식품 이력 추적 규정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한편 소규모 생산자, 소규모 식품 소매업체 및 식당,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하는 농장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제외 대상 여부는 FDA 사이트(<https://collaboration.fda.gov/tefcv13/>)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내 식료품 업계 단체들은 강화된 식품 이력 추적 규정에 함께 대응 노력 중임.
 - 한 예로 11월 초 미국 식료품 협회(National Grocers Association)는 식품 이력 추적 솔루션 제공업체인 레포시트랙(ReposiTrak)과 협업해 회원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레포시트랙의



세계 농업 브리핑

이력 추적 네트워크(Traceability Network) 접속을 위한 설정 비용을 면제하기도 했음.

- 또한 FDA는 12월 7일 웨비나를 개최해 새로운 규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함. 웨비나에서 FDA는 식품 이력 추적 규정으로 인한 총 경제적 혜택은 약 13억 달러 수준이나, 필요한 비용은 미국 내 기업은 5억 7,000만 달러, 외국 기업은 5,10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함. 또한 FTL은 5년마다 개정될 계획이라고 함.

■ 미국은 우리의 주요 농수산물 수출국으로 2021년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은 1억 6,800만 달러에 달하고,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증가해 10월까지 수입액이 1억 7,700만 달러에 이룸.

■ 한편 최근 미국 농무부(USDA)는 달러 강세로 인해 내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FTL에 포함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공급망 단계에서 요구되는 KDE를 종이 또는 전자식으로 저장해 FDA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또는 합리적 시간 내에 전자 분류 가능한 스프레드시트(TLC, 수량 및 단위, 제품 설명 등)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보통 정보가 생성된 지 2년 동안 보관해야 함.

■ 아직 본격 시행까지는 3년 이상이 남았으나, 해당 기업들은 지금부터 FDA의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을 숙지,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해 향후 식품 이력추적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2.12.12.)

2.2. 파라과이, 2022년 경제 견인차는 농업

■ 파라과이는 2023년 경제전망이 밝은 편이고, 지역 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음.

- 파라과이중앙은행(BCP, Banco Central del Paraguay) 총재 호세 칸테로(José Cantero)는 2023년에 파라과이 경제가 4.5%, 또는 이보다 높은 수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경제 회복은 대두 수확과 관련한 농업과 연관성이 크다고 밝혔음.

- BCP의 전 총재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는 2023년 경제 주요 엔진은 농업이 될 것이고, 특히 대두 수확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2023년에는 1,000만 톤의 대두 수확을 예상한다”라고 전망함.



세계 농업 브리핑

- 공공 및 민간기관, 국제기구,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파라과이 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이 농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동시에 파라과이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란 점도 기억돼야 함.
- 루벤 라미레즈 레즈카노(Rubén Ramírez Lezcano) 경제학 박사는 농업에 더해, 관광이 2023년 파라과이 경제 성장의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으며, 건설업도 2023년에 견고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10월 최근 가뭄과 타이트한 통화 및 재정 상황 등으로 2022년 파라과이 경제가 0.3% 역성장하고, 2023년에 5.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Moody's)는 파라과이의 견고한 성장률과 신중한 재정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이달 중순 파라과이 경제전망을 '안정(stable)'에서 '긍정(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음.
 - 무디스는 “중기 관점에서 강력한 해외직접투자와 인프라·재생에너지 투자를 고려했을 때 파라과이는 4% 수준의 연간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인구 720만 명의 파라과이는 과거 수년간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재정적자를 줄였고, 최근 수 개월간 공무원과 공공연금, 공공조달 관련 일련의 재정개혁 정책을 시행해왔음.
 - 파라과이는 주변국과 달리 광물자원이 없고, 낮은 세율과 값싼 전기료, 비옥한 토지 등이 강점이고 대두와 육류 수출 비중이 크며 숙련된 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삼림벌채 등이 문제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2.12.27.)

3 유럽

3.1.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 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 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 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



세계 농업 브리핑

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함.

-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 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

-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한 바 있음.

-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임.
-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 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임.
-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 가격을 제3국 수입 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 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12.16.)

3.2. EU 이사회,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적 합의

- [EU,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공급망 지원을 위한 수출입 법률적 제재] EU 지역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재화 및 공산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임. 이에 따라 EU 역내외 삼림벌채를 부추기는 공급망과 해당 재화 소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EU 역내에서 제기되었음.
- 이에 2021년 11월 EU 집행위에서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생산’ 지원 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음.
- 이번 법안은 EU 역내에서 시행하는 녹색 정책(Green Deal)의 한 일환으로, EU 역내로 공급되는 제품 중 2020년 12월 말 이후로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세계 농업 브리핑

- EU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 삼림벌채를 국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삼림벌채의 정의 및 법안 적용 대상 제품]** EU 집행위 측은 삼림벌채와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를 넓게 해석하여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이나 임업을 목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법안의 초안에 제안된 특정 제품을 반영하였음. 우선으로 해당되는 제품은 EU 역내외로 수출입되는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과 같은 6개의 농산물과 해당 농산물을 가공한 초콜릿, 가구, 가죽 등 일부 제품도 포함되었음. 이에 더해 EU 의회에서 제안한 고무, 숯, 인쇄된 종이 제품, 팜유에서 파생된 특정 재화들까지도 포함된 상태임.
- 해당 내용은 법안의 부속서 I(Annexe I)에 구체적으로 HS 코드와 함께 수록되어 있음.
- 법안 발효 후 EU 위원회 측은 법안에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밝힘.
- **[대상 국가 및 의무]** EU 의회 측은 EU 시장에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은 적법하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였음.
- 이를 위해서 위성 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EU 국가 측은 제출된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검사하고, 제품의 원산지와 같은 DNA를 검사할 자격이 부여됨.
- 게다가 EU 집행위 측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국가별로 삼림벌채 수준에 따라서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할 예정으로, 분류 결과에 따라서 최대 9%부터 최소 1%로 검사 기준이 정해짐.
- 따라서 국가위험도별 검사 기준에 따라 EU 회원국의 세관 측은 수입국에 있어 수입물량에 대해 수준별 검사를 시행할 자격이 있고, 수입국은 그 실사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음.
- 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EU 역내 연매출액의 최소 4%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관련 품목 압류, 기업 매출 압수, 공공 조달 과정에서 제외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법안 발효]** 최종적으로 합의된 규정(안)은 EU 의회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할 단계에 있음. 정식적인 발효 날짜는 공식 승인 후 20일 경과 후에 발효됨. 단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세계 농업 브리핑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의 경우 24개월 후에 개시됨.

- **[시사점]** 이번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생산 법안은 남미 아마존, 동남아 열대우림 등 대규모로 삼림벌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 있음. 하지만 지정된 특정 제품과 관련한 한국산 농식품(커피, 코코아류, 초콜릿 등) 수출 시 실사 의무와 관련해 비용 증가나 절차적으로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의 정보 공유가 중요해질 시기임.

※ 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1.06.)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세계농업 생산량 증가율 감소¹⁾

- 세계농업 생산량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감소가 주된 원인임.
 - 196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농업 생산량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에 들어서 연간 평균 증가율이 1.93%로 60년의 기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농업 생산량 증가율 감소 추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침.
 -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기술 도입, 혁신 등으로 인해 증가함.
 -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더 많은 노동, 자본, 투입재의 사용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켰음. 또한 이 기간에는 ‘녹색 혁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농업 R&D로 인하여 다수확 품종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임.
 - 1980년대 이후 농업 생산량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견인함.
- 개발도상국의 생산량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선진국의 생산량 증가율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생산량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 선진국은 1990년대에 연간 생산량 증가율이 최저(0.2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대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27%를 기록함.
 -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1990년대에 연간 생산량 증가율이 최고점(3.91%)을 달성하였으나,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대에는 2.19%로 낮아짐.
 -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러한 현상은 농가가 생산성이 낮은 토지까지 농지를 확장하는 경우,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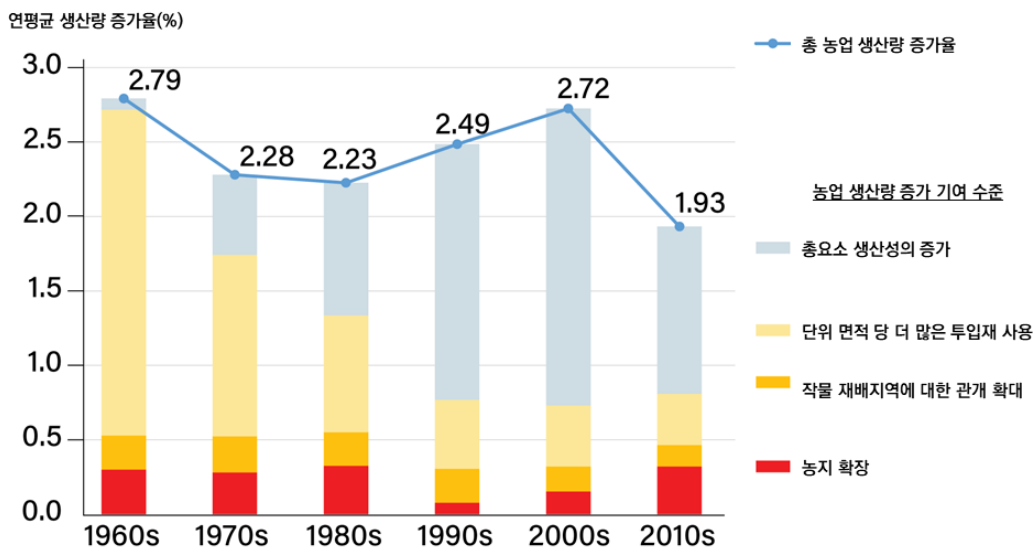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World Agricultural Output Growth Continues to Slow, Reaching Lowest Rate in Six Decades”(2022. 1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생산량 증가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새로운 질병의 확산, 생산성 향상 기술의 개발 감소 등이 있음.
 - **(기후변화)**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며, 특히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강해지거나, 더욱 빈번해지면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수 있음.
 - **(새로운 질병)** 작물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작물을 농가가 도입했을 때, 특수한 투입재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개발)** 선진국에서의 농업 연구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은 지속적인 농업 교육(extension)을 받지 못하며, 재정적 지원, 보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만한 창구가 부족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감소함.

연평균 농업 생산량 증가율 변화



자료: <https://www.ers.usda.gov/>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2 2023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²⁾

- 세계은행(WB)은 2023년 1월 10일(화) 9:30(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각 1.10.(화) 23: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함.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세계경제 전망]**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시장환율 기준)은 1.7%*(선진국 0.5%, 신흥·개도국 3.4%)으로, 2022.6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3%p)함.

※ 주요 국제기구 성장률 전망 비교(PPP(Purchasing-power-parity) 기준)

WB 성장률 전망(2023.1.10.): (2022년) 3.1%, (2023년) 2.2%

OECD 성장률 전망(2022.11.22.): (2022년) 3.1%, (2023년) 2.2%

IMF 성장률 전망(2022.10.11.): (2022년) 3.2% (2023년) 2.7%

- ❶ 고물가, ❷ 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❸ 투자 감소, ❹ 우크라이나 전쟁 등 惡材 증첩 → 최근 30년간 3번째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 전망*

※ (2020년) 팬데믹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지역별 전망]**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선진국 성장 둔화 → 파급효과로 신흥·개도국 자금조달·재정 여건이 악화됨.

| (단위: %) | | 세계 | 미국 | 유로존 | 동아시아 태평양 | 유럽 중앙아시아 | 중남미 | 중동 북아프리카 | 남아시아 | 사하라 이남 |
|---------------|-------|-----|-----|-----|-------------|-------------|-----|-------------|------|-----------|
| 2023.1월 전망 | 2022년 | 2.9 | 1.9 | 3.3 | 3.2 | 0.2 | 3.6 | 5.7 | 6.1 | 3.4 |
| | 2023년 | 1.7 | 0.5 | 0.0 | 4.3 | 0.1 | 1.3 | 3.5 | 5.5 | 3.6 |

- (선진국) 고물가, 재정·통화 긴축정책, 에너지 공급 불안 등으로 2022년 중반 이후 경제 상황 급격히 악화 → 전년 대비 하락(2022년: 2.5 → 2023년: 0.5)

- (미국) 식량·에너지 가격상승 등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경색, 재정·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0.5% 성장 전망
- (유로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급등 및 공급 불안, 예상을 상회한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0% 성장 전망

- (신흥·개도국) 선진국 성장 둔화로 인한 외부수요 약화,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성장 제약, 다만 중국의 회복으로 감소세 상쇄 → 전년 同*(2022년: 3.4 → 2023년: 3.4)

※ 중국 제외 시 2.7%(2022년 3.8%)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계은행(World Bank)”(2023.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s(www.worldbank.org/gep)를 참고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동아태) 중국의 국경봉쇄(lock-down) 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 반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4.3% 성장 전망
- (유럽·중양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체 주로 반영, 그 외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영향으로 0.1% 전망
- (중남미) 수출수요 감소, 국내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 등으로 인해 1.3% 성장 전망
- (중동·북아프리카) 석유 생산 감축 등으로 인한 석유 수출국의 성장 둔화, 일부 국가 사회·정치적 불안정 → 3.5% 전망
- (남아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글로벌 금리 상승,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 악영향 지속 → 5.5% 전망
- (사하라 이남) 인플레이션 및 긴축정책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지속 → 장기 평균 이하 성장세 유지하며 3.6% 전망

■ **[정책제언]**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3년 만에 경기침체 재진입 위험 증대 → 하방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

■ 경제 침체 위험 회피 및 채무 부실화 방지에 중점을 두어, 통화정책 협의·취약계층 지원·개도국 부채관리·기후변화 대응 등 필요.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 2022.6월 대비 세계 경제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 성장률(% , %p): 세계 경제 3.0 → 1.7(△1.3), 선진국 2.2 → 0.5(△1.7), 신흥·개도국 4.2 → 3.4(△0.8)

- 특히, ❶ 추가 긴축, ❷ 신흥개도국 금융 취약성, ❸ 중국 성장 둔화, ❹ 지정학적 갈등, ❺ 기후 재해 등 하방 리스크로 인해 경기침체 확산·불황 가능성 ↑

■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단위: %, %p) ■

| 구분 | 2020 | 2021 | 2022e | 2023f | 2024f | 2022.6월 전망 대비 조정폭 | |
|------------------|------|------|-------|-------|-------|-------------------|-------|
| | | | | | | 2023f | 2024f |
| ■ 경제성장률(시장환율 기준) | | | | | | | |
| (세계) | △3.2 | 5.9 | 2.9 | 1.7 | 2.7 | △1.3 | △0.3 |
| ○ 선진국 | △4.3 | 5.3 | 2.5 | 0.5 | 1.6 | △1.7 | △0.3 |
| - 미국 | △2.8 | 5.9 | 1.9 | 0.5 | 1.6 | △1.9 | △0.4 |
| - 유로지역 | △6.1 | 5.3 | 3.3 | 0.0 | 1.6 | △1.9 | △0.3 |
| - 일본 | △4.3 | 2.2 | 1.2 | 1.0 | 0.7 | △0.3 | 0.1 |
| ○ 신흥시장·개도국 | △1.5 | 6.7 | 3.4 | 3.4 | 4.1 | △0.8 | △0.3 |
| (동아시아·태평양) | 1.2 | 7.2 | 3.2 | 4.3 | 4.9 | △0.9 | △0.2 |
| - 중국 | 2.2 | 8.1 | 2.7 | 4.3 | 5.0 | △0.9 | △0.1 |
| (유럽·중양아시아) | △1.7 | 6.7 | 0.2 | 0.1 | 2.8 | △1.4 | △0.5 |
| - 러시아 | △2.7 | 4.8 | △3.5 | △3.3 | 1.6 | △1.3 | △0.6 |
| (중남미) | △6.2 | 6.8 | 3.6 | 1.3 | 2.4 | △0.6 | 0.0 |
| - 브라질 | △3.3 | 5.0 | 3.0 | 0.8 | 2.0 | 0.0 | 0.0 |
| (중동·북아프리카) | △3.6 | 3.7 | 5.7 | 3.5 | 2.7 | △0.1 | △0.5 |
| - 사우디 | △4.1 | 3.2 | 8.3 | 3.7 | 2.3 | △0.1 | △0.7 |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구분 | 2020 | 2021 | 2022e | 2023f | 2024f | 2022.6월 전망 대비 조정폭 | |
|----------------|------|------|-------|-------|-------|-------------------|-------|
| | | | | | | 2023f | 2024f |
| (남아시아) | △4.5 | 7.9 | 6.1 | 5.5 | 5.8 | △0.3 | △0.7 |
| - 인도 | △6.6 | 8.7 | 6.9 | 6.6 | 6.1 | △0.5 | △0.4 |
| (사하라이남) | △2.0 | 4.3 | 3.4 | 3.6 | 3.9 | △0.2 | △0.1 |
| - 남아공 | △6.3 | 4.9 | 1.9 | 1.4 | 1.8 | △0.1 | 0.0 |
| ■ 국제무역량(전년 대비) | △8.2 | 10.6 | 4.0 | 1.6 | 3.4 | △2.7 | △0.4 |
| ■ 국제유가(배럴당 \$) | 42.3 | 70.4 | 100.0 | 88.0 | 80.0 | △4.0 | 0.0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2022 식량·농업의 미래보고서³⁾

1. 개요

- 2022년 12월 2일, UN식량농업기구(FAO)* 농식품 시스템의 현재 및 신흥 동인과 가능한 미래추세를 분석한 '2022 식량농업의 미래보고서-전환을 위한 동인과 기폭제'(FOFA,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Drivers and triggers for transformation)를 발표.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식량농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전문 지식 보급을 통해 기아 종식 및 영양 수준 개선에 기여

- 현재의 농식품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래 식량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와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

2. 주요 내용

- 농식품 시스템의 현재 및 새로이 부상 중인 동인들과 이들의 미래 동향을 분석,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슈들과 더불어 장래 식량 생산 및 농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과 문제들을 확인.
- 의사결정자들이 단기적인 필요를 넘어서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통찰력의 부재와 단편적인 접근법, 미봉책 등이 모든 이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목표와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긴요함을 주장.

3) FAO 한국협회에서 발간한 "2022 식량·농업의 미래 보고서(FOFA)(New UN report warns that global food crises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out wider systemic change)(<https://www.fao.org/newsroom/detail/new-un-report-warns-that-global-food-crises-likely-to-increase-in-the-future-without-wider-systemic-change/en>)(국제기구 농수산동향 모니터링, 2022.12.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식량안보, 기후변화 완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기폭제’를 확인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화,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트렌드가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함.

■ [농식품 시스템의 동인(Drivers)] 동인이라고 하는 18개의 상호 연결이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요인을 식별하고 이들이 농업, 식품 가공 및 식품 소비를 포함하여 농식품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형성하는지 분석

- 핵심 동인인 빈곤과 불평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희소성 및 자원 고갈, 기후변화는 주요 동인 중 일부이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식량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 시스템이 현재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속적 식량 불안, 자원의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식량안보와 영양,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농식품 시스템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

- 1 변화없음(More of the same): 각종 사건 및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어떻게든 계속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예상한 시나리오
- 2 조정된 미래(Adjusted future):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이 느리고 불명확한 속도로 발생
- 3 바닥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 최악의 시나리오로 혼란에 빠진 세상의 모습
- 4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이익 감수(Trading off for sustainability): 농식품, 사회경제, 환경 시스템의 포괄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시나리오

■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폭제(Triggers)]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경로를 시급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총 4개*의 ‘전환의 기폭제’를 제시

※ 1 개선된 거버넌스, 2 비판적이며 인식이 제고된 소비자, 3 더 나은 소득과 부의 분배, 4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법

■ [소비자와 투자의 역할] 소비자는 “보다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영양가 있는 제품 쪽으로 수요를 이동시킴으로써 변혁적 프로세스를 촉발할 힘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더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될 필요.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더 나은 소득과 부의 분배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단지 기아가 아닌 빈곤에서 구제하도록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부유한 국가들이 농식품 시스템 전환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권고.
-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법의 추가적인 개발이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학 연구 및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는 이들도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접근할 필요.
- **[시급한 조치 필요]**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포괄적인 전환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정부, 정책입안자, 소비자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상충점을 해결 또는 상충점 간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할 것임.
 - 필요한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 집단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의 부정적 효과에 이미 영향을 받은 국가 또는 집단에 원조를 제공함.
 - 전 세계가 농식품 관련 목표들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며, 2050년 전 세계가 10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운데, 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전례 없는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 지적
 -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 소비자, 기업, 학계 및 국제사회가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신규농가와 취약농가의 농지 접근성⁴⁾

- 농지의 세대 간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농과 취약농(socially disadvantaged farm)의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음.
 - (고령화) 미국 내 농업 생산자의 평균 연령은 57.5세이고 1/3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 농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증가하여 농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지 집중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농가에 농지가 집중화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의 규모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들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 2017년 기준 신규농(영농 경력 10년 이하)은 전체농가의 약 17%를 차지하며, 미국 농업 생산량의 8%를 생산함.
 - 취약농은 일반적으로 경영주의 성별, 인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됨.
- 농무부는 신규농가와 취약농가의 낮은 농지 접근성, 재정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 (대출) ①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 대출(direct loan program), ② 보증 대출 프로그램(guaranteed loan program)의 두 가지 대출 형태를 제공함. 신규농의 약 60% 이상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 대출받는 비율 또한 16%로, 일반 농가가 정부에서 대출받는 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음.
 - (USDA 보존 프로그램) 농무부는 매년 50억 달러 이상을 보존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 신규농가와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농지이양촉진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s Program)이 있어 이 정책을 통해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농가가 농지를 즉시 판매 혹은 임대를 하는 경우에 2년간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함.

4)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Access to Farmland by Beginning and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Issues and Opportunities" (2022.1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지역 내 신규농과 취약농의 비중은 임대농지의 확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농지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신규농과 취약농의 농지 접근성 대신 지역 내 농가 중 신규농과 취약농의 비중을 사용함.
 - 지역 내 평균적인 임대농지 면적의 확대는 지역 내 신규농과 취약농의 비중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균 농지 임대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신규농과 취약농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로 존재함을 의미함.
 - 지역 내 임대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농지 면적의 비율과 일부 취약농의 지역 내 비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지역 내 임대된 토지의 비중과 지역 내 신규농과 취약농의 비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신규농과 취약농이 농지 확보에 있어 농지의 구매보다는 임대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 농무부 프로그램 참여와 직불금 또한 지역 내 신규농 및 취약농의 비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에서 직접 및 보증 대출 프로그램의 승인 비율과 취약농의 비중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취약농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
 - 작물보험료와 신규농과 일부 취약농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보존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신규농과 취약농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하지만 농지이양프로그램과 농업보존지역권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은 신규농 및 취약농 비중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유럽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해상 운송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됨에 따라 전 세계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미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세계 밀의 약 34%를 수출하였으며, 이 중 95%는 해상으로 운송됨.
 -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상 운송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식량 공급 안정성이 위협을 받음.
- 2022년 7월 22일, 식품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UN은 국제 해상기구(IMO)가 참여하는 흑해 곡물(BSG) 수출협정을 체결함.
 - IMO는 무력 충돌 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초된 선박과 선원의 대피를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 BSG 수출협정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오데사※를 포함한 여러 흑해 항구로부터의 수출을 허용함.
 - ※ 오데사: 우크라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중 하나
 - 협정은 안전한 해상 항로를 통해 흑해 항구에서 국제 수역으로 화물선을 안내하는 이스탄불의 공동조정센터(JCC)에 의해 이루어짐.
 - 협정 이후 2022년 11월 7일 기준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수출된 곡물 및 기타 식품의 총 물량은 약 1,100만 톤 이상이며, 이 중 1/4은 저소득 국가로 운송됨.
- BSG 수출협정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120일 동안 이행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계획이 중단됨.
 - 이후 2022년 11월 17일에 BSG 수출협정을 12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5)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Russia's war on Ukraine-Maritime logistics and connectivity: State of play"(2022.12.16.)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EU는 러시아의 BSG 수출협정 중단을 규탄하고, 러시아가 결정을 즉시 번복할 것을 촉구함.
 - 해상 운송과 관련된 EU의 조치 및 최근 제재 정책에 따라 EU 항구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폐쇄를 강행하였으며, 해상 제품을 포함한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됨.
 - 이러한 제재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전쟁 상황에 따라 EU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 EU 해양안전청(EMSA)은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흑해 상공 비행을 지속하고 있음.
- EU는 BSG 수출협정 외에도 육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을 포함하는 연대 통로(Solidarity Lanes)의 지속성에 전념함.
 - 2022년 11월 11일, 위원회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 통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함.
- 흑해를 이용한 상품 거래는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오데사가 공격을 받으면 선박 적재 문제가 발생함.
- 우크라이나와의 중요한 상품 운송을 위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회원국, UN 및 기타 당사국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벨기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의 곡물 선적을 더 많은 국가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중반까지 약 6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남반구 국가로 곡물을 운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와 약 20개국이 이에 동의함.
- 2020년 이후 곡물 가격과 운송 비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유럽

2 2022년 최종 유럽이사회 주요 의제와 결과⁶⁾

- 2022년 12월 15일 개최된 2022년 마지막 정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경제 분야에 대한 의제가 논의됨.
-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비난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민간 핵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재정적·군사적·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특히 2023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 유로 규모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조치에 합의함.
- 유럽평화기금(EPF)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훈련 지원(EUMAM Ukraine)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조함.
 - EPF의 재정 범위를 20억 유로까지 늘리고 이후 단계별 추가 재정 증가를 허용하는 정치적 합의에 승인함.
-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민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손상된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함.
 -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 지원 회의를 주최했으며, 난방시설, 발전기 등 10억 유로 규모의 겨울 생활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 유가 상한제가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함.
-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곡물(Grain from Ukraine)’ 구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럽이사회는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의 단계적인 감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6)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Outcom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f 15 December 2022”(2022.12.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동절기 대비를 강조하면서 공동 가스 및 수소 구매를 위한 EU 에너지 플랫폼의 신속한 운영과 소비 절감 및 가스 저장시설의 확충을 촉구함.
-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위기의 위험성에 동의하며, 유럽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회복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에너지 위기가 EU의 경제, 산업 및 기술 기반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유럽 경제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 유럽이사회는 2023년 1월까지 유럽 및 국가 차원의 자원을 동원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EU 전략을 제시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청함.
- EU와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 유럽이사회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데 동의함.
- EU의 경제 및 산업 기반은 다음 유럽이사회의 중심 의제가 될 것임.
 - 유럽위원회 의장은 유럽 그린 딜을 EU의 '가장 실질적인 우선순위'이며, 에너지 시장의 개혁 및 에너지원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공동 조달에 중점을 두었으며, EU의 모든 임무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유럽이사회는 EU의 확대와 관련한 결론을 승인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경축 연계 추진사업⁷⁾

-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산 사료 생산·이용 증진을 위해 경축 연계를 추진사업으로 착수함. 농업재생 협의회(경종농업 측)와 JA(축산 측) 등을 연계하여 경종 농가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계약을 추진함.
-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요건으로 축산농가가 국산 사료를 기존보다 구매량이 증가했을 때 1톤당 최대 1만 2,000엔을 지원함. 경종 측은 컨트랙터(농작업수탁조직) 기계 도입비의 절반까지 지원함.
 - 2022년도 제2차 추경에서 30억 엔을 투입한 ‘경축 연계 국산 사료 이용 확대 대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지역별로 협의회를 만들어 추진함.
 - 협의회는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경종 농가와 국산 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쌍방의 정보를 연계하여 계약 체결을 촉구함.
- 주식용 쌀 수급 안정 측면에서도 경종 측은 벼를 전환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를 주요 대상으로 함.
- 경종 농가는 축산농가 측으로부터 사료 성분 분석 결과 및 급여량 등의 정보제공을 받아 차기작 이후 개선으로 이어짐. 축산 측은 미활용 퇴비가 있는 경우, 경종 측에 제공함.
 - 이러한 선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종·축산 농가 간에 맺는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대상 사료는 옥수수과 목초, 수수 등임. 사료용 쌀이나 벧짚, 곤포사일리지(WCS)는 주식용 쌀로 다시 전환하기 쉬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축산농가에는 대상이 되는 국산 사료 구매량이 기존 구매량보다 증가한 분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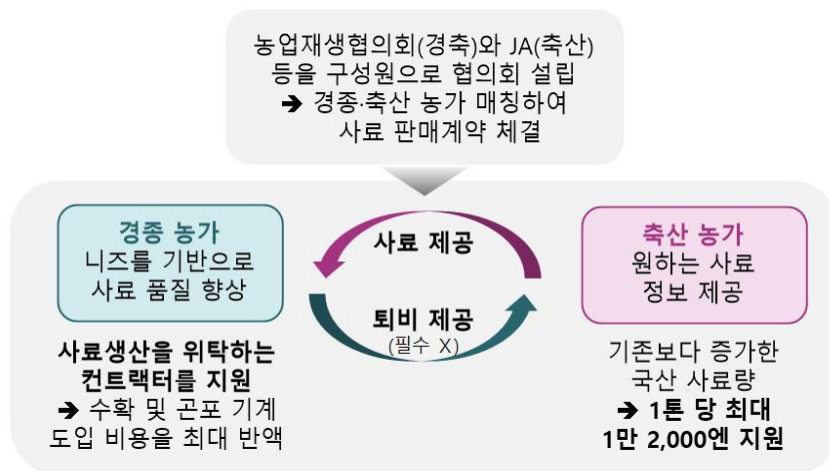
7) 일본농업신문 “[「耕畜マッチング強化 飼料国産化へ長期契約に助成 農水省」](#)(2022.12.1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옥수수(청예작물), 목초, 수수의 경우 구매량 1톤당 7,800엔, 자실 옥수수의 경우 1만 2,000엔이며, 사료 성분 분석 비용 및 보관 장소 임차비, 비닐하우스 등 간의 장소 정비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경종 측에서는 사료 생산을 위탁하는 콘트랙터에게 지원하며, 파종 및 수확, 곤포 등에 필요한 기계 구매 및 리스 도입 비용의 절반까지 지원함.
- 또한, 협의회를 통한 매칭 활동, 사료 생산 기술 지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

| 경축 연계 추진사업 포인트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미도리(녹색) 품종 육성방침⁸⁾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2월 21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 목표 실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미도리(녹색) 품종 육성방침을 공표함.
- 향후 약 5년 후 달성을 목표로 주요 육종 목표를 수립함과 동시에 계능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스마트 육종 기반을 구축하여 품종 육성을 가속화 하는 것임.

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食料安保強化と環境負荷低減へメタン排出低減イネなど育種方針策定”(2022.12.22.)(<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12/221222-63669.php>, <https://www.affrc.maff.go.jp/docs/press/221221.html>)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미도리 전략은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제로(zero-emission), 농약 사용량 50% 저감(리스크 환산 기준), 화학비료 사용량 30% 저감 등을 목표로 함.
- 미도리 품종 육성 방침은 ① 온실가스 감소에 이바지하는 품종, ② 농약 사용량 감소에 이바지하는 품종, ③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 이바지하는 품종, ④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는 품종, ⑤ 식량 안보에 이바지하는 품종이라는 5가지 품종 육성 목표를 수립하였음.
- **[온실가스]**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은 농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4을 차지함. 지금까지 배출 감소 기술로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 및 추경이 개발되고 있지만, 더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 메탄 감소에 이바지하는 벼 품종을 육성하고자 함.
-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메탄 배출량은 벼 품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뿌리의 형질이나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해석이 진행되고 있음.
- 육성방침에서 이 형질을 ‘고시히카리’ 등 주력 품종에 도입하고, 지역 브랜드 품종 및 업무용, 가공용, 사료용, 가루 쌀 품종 등에 도입을 도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농약]** 농약 사용량 감소를 위한 품종을 육성 중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구마 기부병 저항성 품종임. 감자는 청과용, 가공식품용, 전분 원료용, 양조용 등 널리 이용되어 있어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함.
- **[화학비료]**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 이바지하는 품종 육성에서는 BNI(Biological Nitrification Inhibitor)능*을 강화한 밀이나 옥수수 등을 육성함. 비료는 토양미생물 질화작용에 의해 질산태질소가 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CO₂)의 298배의 온실효과를 갖는 아산화질소(N₂O)로 변환되어 배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 BNI능이란 식물 스스로가 질화작용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비료를 흡수할 수 있음. 이 능력을 높인 품종이 육성되면 적은 양의 비료로도 생육할 수 있어 비료 감소에 이바지함.
- **[기후변화]** 과수에서는 착색이 우수한 사과·포도 품종, 고온에서도 부피*가 적은 감귤을 육성함.
 - ※ 감귤 껍질이 부풀어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현상
- **[식량안보]** 빵이나 면으로 가공하기 적합하고 제분성이 뛰어난 벼 품종 및 생산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보리, 대두, 열량 공급량이 높은 고구마, 감자 품종을 육성함.
- 또한,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습성이나 적곰팡이병 저항성, 내도복성이 높은 자실용 옥수수, 수확성이 우수한 목초 품종 육성도 추진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품종 육성을 가속화 하기 위해 최적의 교배조합을 예측하는 기술 및 계능 정보를 기반으로 유망 품종 후보를 신속하게 선발하는 기술 등 스마트 육성 기반을 구축함.
 - 이번에 수립한 목표로 하는 품종을 교배하여 육성할 수 있는 품종으로 계능 편집은 이용하지 않음.
- 육종 기반을 이용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 민간기업 등 ‘을 재팬 체제[※]’로 품종 육성을 가속화할 방침임.
 - ※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의 벽을 넘어, 일본 전국의 모든 관계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업 노동 환경 이미지 변화⁹⁾

- 일본 농림수산성이 고용 취농자를 대상으로 취농 전후로 농업 노동 환경에 대한 이미지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 안정성과 복리후생, 근무시간 유연성에 대해서는 취농 후가 취농 전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취농 후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취농인의 정착 및 성장에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조사는 2020년도에 농림수산성의 ‘농업 일자리 사업(農の雇用事業)’을 활용한 농업법인 등에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취농하기 전과 취농한 후에 농업 노동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 조사하였음.
- 취농 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으나, 취농 후에는 고용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자[※]군 중에서는 26%,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자^{※※}군 중에서는 19%로 증가하였음.
 - ※ 현재 소속된 고용처에서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
 - ※※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현재 고용처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 다른 법인 또는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
- ‘복리후생이 갖춰져 있음’은 취농 전 3%에서 취농 후 26.2%로, ‘노동시간에 융통성이 있음’은 11.2%에서 23%로 취농 후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9) 일본농업신문 “雇用就農してみたら…「想定より収入安定」「人間関係で負担感」 農水省が意識調査”(2023.1.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위의 항목에서 고용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자군이 취농 전후 이미지에 대한 응답 비율의 변화가 컸음. 이를 통해 고용 측이 취농 전 기대치를 넘는 환경 제공 여부가 취농인의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육체적으로 힘들’을 꼽은 비율은 취농 후가 취농 전보다 낮게 나타났음. 한편 ‘수입이 적음’은 취농 전에는 33%이며, 취농 후에는 고용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자군은 14%,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자군은 30%로 큰 차이를 보여 수익에 따라 취농인의 정착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간관계가 복잡함’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취농 전에는 3%, 취농 후에는 고용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자군은 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자군에서는 18%로 크게 증가하였음.

| 농업 노동 환경 이미지(%) |

| 선택 항목 | 취농 전 (N=1,157) | 취농 후 | |
|------------------|-------------------|------------------|------------------|
| | | 고용 유지 (N=591) | 이직 희망 (N=181) |
| 수익이 높음 | 5.0 | 5.4 | 3.3 |
| 수익이 낮음 | 633.2 | 13.5 | 30.4 |
|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5.9 | 26.4 | 19.3 |
| 수익이 불안정함 | 31.3 | 6.9 | 14.9 |
|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음 | 9.1 | 12.7 | 6.1 |
|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지 않음 | 11.8 | 5.1 | 11.0 |
| 복리후생이 갖춰져 있음 | 3.0 | 26.2 | 12.7 |
| 복리후생이 갖춰져 있지 않음 | 16.2 | 2.2 | 3.9 |
| 주위 사람과 교류가 있음 | 11.7 | 22.5 | 17.1 |
| 주위 사람과 교류가 없음 | 5.7 | 2.0 | 10.5 |
| 인간관계로 고민하지 않음 | 19.1 | 15.7 | 11.0 |
| 인간관계가 복잡함 | 3.4 | 4.7 | 17.7 |
| 장기간 일할 수 있음 | 8.6 | 12.7 | 4.4 |
| 장기간 일할 수 없음 | 4.8 | 1.9 | 11.6 |
| 근무시간이 융통성 있음 | 11.2 | 23.0 | 12.7 |
| 근무시간이 융통성 없음 | 9.2 | 2.5 | 9.4 |
| 체력을 활용할 수 있음 | 20.4 | 20.1 | 22.7 |
| 육체적으로 힘들 | 27.7 | 9.0 | 17.7 |

주: 1) 각 조사 항목은 5개까지 선택

2) 상위 5가지 항목을 색으로 표기하였으며, 노란색은 긍정적, 주황색은 부정적 이미지 항목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4 농업 노동 환경 이미지 변화¹⁰⁾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2월 27일, 농업 지원 서비스(유상)*에 관한 의식·의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불특정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드론 살포 위탁, 데이터 분석, 농기계 공유, 농업 현장 인력 공급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유상 서비스)

※※ 2022년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에 걸쳐, 유상 농업 지원 서비스에 관한 의식 및 의향에 대해 2020년 농림업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농업자 등이 있는 개인 경영체 세대주 및 단체 경영체 대표 농업인 2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10,793명이 응답하였음.

- **[유상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4.3%, ‘이용하고 있지 않음’은 75.7%였음.

- **(이용 중인 유상 서비스)** 유상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용 비율은 ‘전문 작업 수주형’이 9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형’ 37.8%, ‘인력 공급형’ 36.3%, ‘기계 설비 공급형’ 28.5%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 **(원하는 유상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원하는 유상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원하는 모든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4.4%, ‘원하는 유상 서비스 중 일부만 이용 가능함’은 61.5%로 조사됨.

- **[향후 유상 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향후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향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1.8%인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77.0%였음.

-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원하는 유상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및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이용하고 싶은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애초에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음’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30.6%, ‘원하는 작업의 서비스를 찾지 못함’ 27.4%, ‘이용료가 비쌌’ 2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원하는 유상 서비스 중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해서는 ‘이용료가 비쌌’ 29.7%고, ‘원하는 작업의 서비스를 찾지 못함’ 27.7%,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1.4%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10)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支援サービス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結果”(2022.12.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유상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애초에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9.0%, '원하는 작업의 서비스를 찾지 못함' 27.2% 순으로 나타남(복수 응답).

■ **[원하는 유상 서비스]** 원하는 유상 서비스 중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및 향후 유상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원하는 유상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문 작업 수주형'으로 응답한 비율은 7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력 공급형' 69.1%, '기계설비 공급형' 50.6%, '데이터 분석형' 37.8% 순으로 조사됨(복수 응답).

■ **[유상 서비스 미이용 이유]** 앞으로도 유상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에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음'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7.2%, '원하는 작업의 서비스를 찾지 못함' 19.0% 순으로 응답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1.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